연말 무더기 발주 보도정비공사 말썽

광산구 11건 5억 3000만원 발주
부실시공에 주민들 통행 불편
멀쩡한 보도블록을…예산 낭비
광산구-시공업체 유착 의혹도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연말 집중적으로 발주한 '보도정비공사' 곳곳에서 부실시공 현상이 발견돼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교체되기 전 보도블록의 상태가 양호한 점과 부실시공에도 준공된 점 등을 들어 광산구와 업체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광산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는 신창동 일대와 운남초교 주변 등 관내 11곳의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보도정비공사'를 지난해 연말 무더기로 발주했다. 지난해 11월에 4건, 12월 7건 등 11건으로, 총 공사비만 5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도정비공사를 통해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곳곳이 부실시공돼 주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신창동 남양휴튼아파트 일대 보도정비공사 현장은 노면 및 경계석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일부 시민이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등 엉터리로 시공됐다.

특히 노면 지반 다짐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가 내릴 때면 보드블록 사이사이에 물웅덩이가 생겨나는 등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주부 K(39)씨는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왜 기존에 멀쩡했던 보도블록을 뜯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각종 하자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광산구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이 공사 감독을 맡다 보니 발생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시공마저도 임시 땜질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른바 '누더기 노면'이 돼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재시공한 일부 횡단보도 입구의 경우 경계석의 높낮이를 임시 땜질식인 시멘트 타설 방식으로 처리해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운남동 보도정비공사의 경우 진출입 부분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진출입 부분에 대해선 재시공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보도블록을 갑자기 엉망으로 교체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라면서 "감사기관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마을행정사가 24일 광산구청사 1층에 마련된 전담창구에서 행정업무 처리를 고민하는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행정 문턱 낮추는 광산구 마을행정사

재능기부 11명 위촉 활동 시작
매주 목요일 행정처리 돕고 상담

재능기부로 시민의 행정업무 처리를 도와줄 광산구 마을행정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을행정사는 복잡한 행정서류 및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는 '재능기부 행정사'다. 광산구는 앞서 11명을 위촉했으며,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광산구청 1층 민원봉사과 내에 마련된 전담창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현장 무료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인허가 면허 등 작성 대행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를 무료로 지원한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마을행정사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행정업무 처리가 쉽고,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오미크론 확산 막아라"…광산구, 집중 대응체제 가동

구청 7층에 종합상황실 운영
보건 인력 총동원 총력 대응

광주 광산구가 '오미크론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광산구는 지난 22일부터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방역대책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최근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심각해진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도입에 따른 주민 혼선 예방과 사전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4일 기준 광산구 1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75명으로, 광산구 전체 누적 확진자(3638명)의 30%가 최근 3주 만에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광산구내 선별진료소 하루 검사 건수도 5000건을 넘어섰으며, 역학조사 동선이 200개 이상에 달하는 등 방역 대응 환경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광산구는 기존 감염병 대응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일단 보건소 운영 최소인력 46명을 제외한 가용인력 87명, 일반 행정인력 33명, 총 120명을 방역대책 종합상황실에 투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기초조사, 현장 역학조사, 재택치료 지원,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선별진료소 운영시산도 오는 2월6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12월까지 한시 시행 50% 감면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수료 감면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 간판과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감면 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옥외광고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설 연휴 방역·생활 안정 종합대책 추진

집합제한시설 방역 집중점검
코로나 긴급 대응반 운영
청소·교통·보건 등 5개반 가동

광주 광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과 구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오는 2월 2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설 특별 방역대책'와 '구민생활안정대책' 2개로 나눠 설 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최근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 특별 방역대책으로 3개 항목 8대 과제를 마련했다.

구는 설 명절 기간동안 종교, 문화, 체육, 방문판매, 여가,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복지시설 등 7개 분야 3135개 집합제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긴급 대응체계를 위한 '설 명절 대비 긴급대응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민생활안정을 위해 청소, 교통, 시민안전, 보건 등 5개 반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7개 항목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반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제설, 붕괴위험시설물 등 각종 재난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의 품질과 위생, 석유, 가스 등 안정적 연료 공급,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의 운영 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 과대포장행위 집중 점검, 쓰레기 수거 처리 체계 구축,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 및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설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을 위해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구는 설 연휴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교통질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광주공항과 광주송정역 등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반도 운영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만남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